metro
메트로 2013년 9월 25일 수요일 www.metroseoul.co.kr

Sports p/22

끝내준 추신수 '20-20' 대기록

이 비 그치면… 가을비에 젖은 낙엽길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제법 많은 양의 가을비가 내린 24일 오후 서울 남산공원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낙엽이 쌓이기 시작한 길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길고 과장 많은 자기소개서>

7500자 '자소설' 쓰는 요즘 구직자

기업 원하는 자기소개서 쓰려 전전긍긍…타 대학 채용 박람회 가려 단체휴강도 예사

홈페이지 마비…200자 원고지 40매 쓰기. 서울 원정… 사이버 테러나 백일장이 아니다. 하반기 취업 시장 풍속도다.

주요 기업 하반기 공채 경쟁률이 수백대 일을 거뜬히 넘는 등 올해 채용 시장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자 취업 진풍경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이 홈페이지 마비로 서류 마감을 연장하는 일은 통과의례다.

지난 2일 대기업 중 처음으로 하반기 공채를 시작한 LG전자는 서류 마감일을 이틀이나 연장했다. 원래 23일 오후 6시였지만 지원자 폭주로 홈페이지가 마비되면서 마감 시한을 25일 오후 11시까지 늘렸다.

한 지원자는 "당시 홈페이지 접속도 느리고 로그인 자체가 안 됐다"면서 "입사 지원을 위해 이미 확인을 클릭하면 홈페이지가 멈췄다"고 전했다.

◆홈피 마비돼 서류마감 연장 속출

우리은행은 23일 오후 3시에 하반기 신입 행원 서류를 마감하려 했지만 긴급히 자정까지 접수를 연장했다. 포스코, 신한은행, 대한항공 등도 비슷한 이유로 서류 마감일을 연장하는 진통을 겪었다.

모 기업 관계자는 "지원자가 막판에 몰리면서 원활한 접수를 위해 마감 시한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공채 시즌에는 전사 차원에서 서버를 늘리고 비상인력을 대거 배치하지만 취업난이 점점 심해져 이런 일이 잦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 자기소개서는 이제 '자소설(내용이 길고 과장이 많다는 의미)'로 불린다. 기업이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문항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기가 높은 금융권의 자기소개서 문항은 길고 독특하기로 유명하다.

현재 공채가 진행 중인 신한은행의 1번 문항은 본인의 성장 과정을 3600자 내외로 기술할 것을 요구한다. 나머지 4문항도 1000자 내외로 답해야 한다. 자기소개서를 다 쓰면 7500자의 장문을 쓰게 된다.

전형을 마감한 국민은행의 문항 중 하나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건과 그 이유에 대해 약술하라'였다.

성균관대 경제학과 졸업반 이모(26)씨는 "기업마다 문항이 차별화되 '복사 붙여넣기' 단축키보는 자기소개서를 쓰기 어려워졌다"면서 "문항이 까다로워 자소설을 '집필'하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복잡해지는 채용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 취업 준비생의 채용박람회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타 학교 또는 다른 지방에서 열리는 채용 박람회 참석을 위해 원정 가는 경우는 흔한 풍경이다. 일부 대학은 단체 휴강을 하기도 한다.

취업포털 사람인 임민욱 팀장은 "기업들이 고스펙자보다 기업 문화에 잘 맞는 장기 근속 가능자를 뽑으려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채용 전형이 다양해졌지만 결국 구직자만 고달파진 취업 시장이 됐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LG전자 서류 마감 연장 공지

택시 기본료 3000원

서울시, 다음주 적용시기 확정 발표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연내 3000원으로 현재 2400원에서 600원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8월 중형 택시의 기본요금을 2900~3100원으로 인상하는 요금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24일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

물가대책위 심의에서 중형 택시 기본요금은 3000원, 대형·모범 택시는 500원 올린 5000원으로 책정됐다.

시계외요금 부활과 거리 요금을 142m당 100원씩 받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형 택시 요금은 현행대로 2100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시는 변경된 요금 시행 일자 등을 담은 '택시서비스 개선 종합대책'을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유리기자

차기전투기 원점 재검토

F-15SE 부결 "전력공백 없도록 신속히 재추진"

미국 보잉의 F-15SE(사일런트이글)가 차기 전투기 기종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방위사업청은 24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F-15SE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안'을 심의한 결과, 기종별 임무수행 능력과 비용 등 분야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보 상황 및 작전 환경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최종 부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 전투기 소요 수정과 총 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8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건국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인 차기전투기(F-X) 사업에는 F-15SE를 비롯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유로파이터 등 3기종이 입찰했으나 F-15SE만 총사업비 한도 내의 가격을 제시해 단독후보로 방추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F-15SE는 구형 전투기 개량형으로 성능이 떨어진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김민준기자

"시민이 부르시면 총알처럼 출동하겠습니다" 부산 남구 대연동 옛 남부경찰서 건물 외벽에 500㎡ 크기의 대형 광고물이 설치됐다. 신속한 출동으로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내용의 이 광고는 유명 광고인 이제석씨의 재능기부와 부산은행 등의 지원으로 제작돼 24일 공개됐다. /뉴시스

뉴스 & 뉴스

국정원, '내란음모' 통진당 시의원 압수수색

●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이 24일 안소희 파주시의원 자택과 시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 파주지부장의 부인이다. 국정원은 안 의원에게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고, 압수수색 대상에는 안 의원 신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 내년 하반기 개통

● 서울시가 24일 강서구 마곡지구 분양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비해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을 내년 하반기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단계에 걸쳐 건설되는 마곡나루역은 한 곳뿐인 출입구를 한 곳 더 설치해 개통하고, 나서 마곡중앙광장, 서울화목원(가칭)과 연계해 출입구를 4~5개로 늘리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마곡나루역이 개통되면 9호선 신방화역을 이용하는 주민의 지하철 접근성이 높아진다.

<조선일보가 지목한 아동 측>

"유전자 검사 응해달라"

채동욱 총장, 혼외아들 의혹 정정보도 소송 "진실규명 위해 모든 노력"

채동욱(사진) 검찰총장이 24일 자신의 혼외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채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45분께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6일 조선일보에서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지 19일 만이다.

채 총장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라는 제목의 입장 발표문에서 "오늘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며 "소송 과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신속히 진실이 규명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사에서 지목한 해당 아동 측에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저로서는 알 수 없으나, 혼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 주실 것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에 대한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모든 법 절차에 따라 규명해 나갈 것이며, 그것만이 이 혼란 사태를 신속히 정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 외에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 등 다른 법적 조치도 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채 총장은 "검찰총장이 조사 대상자가 되면 전국의 검찰을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지휘할 수 없다. 법무부 조사 결과 저의 억울함이 밝혀진다 해도 어차피 제가 검찰총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며 사퇴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을 재확인했다.

한편 13일 사의를 표명한 채 총장은 16일부터 나흘째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김민준기자 mk.m@metroseoul.co.kr

"좀 다듬는 것일뿐" vs "표 찍은 노인들 실망"

여야, 기초연금 공방 가열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의 기본 공약인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 장외 공방을 벌였다.

24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란히 출연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먼저 설전을 벌였다.

김성태 의원은 "국가 재정 상태를 볼 때 지난 대선의 복지 공약을 100%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6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진솔한 사과 입장을 밝히고 국민을 설득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심에 찬 정부의 입장과 결정을 갖고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쟁점화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의원은 "새누리당이 선거 때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드리겠다'고 제시한 공약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노인들이 표를 찍었는데, 지금 노인분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있다"며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제대로 돈을 걷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인천 해양경찰서 중앙 부두에서 열린 제60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총통장 훈에 신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태흠 대변인과 민주당 이언주 대변인도 KBS 라디오에서 공방을 이어갔다.

김 대변인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연금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큰 후퇴라고 보지 않는다"며 "합리성, 효율성 측면에서 좀 다듬는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자 이 대변인은 "재정 문제가 대선 당시 없었던 것이 아닌데 그냥 그때는 이렇지만 지금은 이렇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아직은 국가 부채가 감내할 수준이지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국가 재정 위기가 되고, 국가 부도까지 갈 수 있다"며 "우선 힘든 분(계층)부터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많다"고 정부의 입장을 거들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민의 복지 열망을 악용한 공약 사기, 선거 사기 행위"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준기자

중기 23.9% '을의 눈물'

최근 1년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 횡포 경험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4곳 가운데 1곳이 '납품가 후려치기'를 비롯해 불공정 거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2013 부당 납품단가 인하 행위 현장조사'에 따르면 동반성장 대상 대기업 72곳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 902곳 가운데 23.9%인 216곳이 최근 1년 이내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는 통신(44.4%)과 정보(30.6%)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가 심각했다. 자동차 분야는 19.6%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비율로 장기 납품단가 인하'가 58.3%로 가장 높았다. '낙찰가보다 낮은 하도급 대금' 26.4%, '경제상황 변동 등 협조 요청 명목으로 납품가 감액' 20.8% 등의 순이다.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납품가의 5% 이하가 78.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10% 이하가 21.3%였다. 특히 부당거래 관행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개선됐다'는 응답은 6.1%에 불과했고 '악화됐다'는 32.0%, '보통' 25.0%, '무응답' 37.0%로 조사됐다.

납품단가에서도 대기업 횡포가 여전했다. 중소기업의 제조원가는 2011년을 100으로 했을 때 지난해 108.7, 2013년 112.1로 상승했으나 납품단가는 지난해 96.8%, 올해 94.4%로 하락했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모조리 가짜 중국에서 수집한 가짜 비아그라 130만정과 가짜 녹용 600kg, 짝퉁 명품시계 1640점을 면봉으로 속여 인천항을 통해 밀수하려 한 일당이 적발됐다. 24일 인천본부세관 직원들이 압수한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몰카 범죄' 2008년 576건→2013년 2766건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민주당 임내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는 2008년 576건에서 올해 8월 현재 2766건으로 6년간 480% 증가했다.

범죄 장소로는 역내대합실 1367건, 지하철 1280건, 노상 1030건으로 전체 범죄의 40%를 차지했다. 숙박업소와 목욕탕에서 587건, 단독주택에서도 462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4131건, 경기에서 1538건 등이 발생하는 등 서울·경기지역에서 전체 범죄의 62%를 차지했다.

임 의원은 "공공장소 등에서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가 최근 6년간 480% 급증했다는 것은 그동안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가 많아졌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안 또한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유리기자

손 없으면 발로 악수 유엔(UN) 장애인권리위원회 테레시아 데거너(왼쪽) 위원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존 케리(오른쪽 위) 미 국무장관, 시진시 카와오(오른쪽) UN 주재 미 대사와 손 대신 발로 악수하고 있다. 양팔 없이 태어난 데거너 위원은 2009년부터 UN에서 활동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중국의 문학가 루쉰 태어남

1881년 9월 25일 근대 중국이 세계적 작가이자 사상가인 루쉰이 저장성 사오싱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저우수런으로 루쉰은 필명이다. 지주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집안의 잇따른 불행으로 고생스러운 소년기를 보냈다. 일본으로 유학, 기의학 공부를 했으나 문학의 중요성을 통감해 국민성 개조를 위한 문학을 지향했다. '광인일기', '아큐정전' 등으로 봉건사회 중국의 모순을 파헤치고 좌익 작가연맹의 지도자로 민족주의와 예술지상주의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의 사상은 이후 중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불법 게임장 '어플방' 적발

불법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영업이 어려워지자 통신판매업을 가장한 신종 불법 게임장인 어플방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24일 신종 불법 게임장인 일명 '어플방'을 운영한 업주 A(37)씨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종업원 3명과 환전상 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게임기 40대와 현금 570만여 원을 압수했다. A씨 등은 부산 북구 구포동에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한 어플방을 개설, 사행성 게임을 알선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어플방은 1만원을 내면 1000점짜리 쿠폰을 주고, 이를 이용해 태블릿 PC로 사행성 게임을 한 뒤 획득한 점수의 10% 제한 금액(1만점당 9000원)을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노래지도강사 자격연수

사)한국노래지도강사연합회와 한국놀이문화부산공연시협회는 오는 7일 공인 노래지도강사 자격연수 강좌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총 3개월간 진행되며 유명 가수 황소정·자미곤 등과 김재국 교수 등이 지도에 나선다. 특히 웃음건강박수 창시자인 조영춘 박사의 레크리에이션과 건강박수, 웃음 지로 리더십 교육도 포함해 다른 노래교실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051)441-5511 7895

실버패션쇼 참가자 모집

위풍당당 실버들의 화려한 외출이 시작된다.

사회복지법인 청진은 11월 23일 부산디자인센터 어벤트홀에서 '제6회 실버패션쇼'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건전한 가족 비랍과 세대 간 교류의 장 및 신노년 문화 확립을 목표로 마련됐다. 10월 8일 예선을 거쳐 6주간의 워킹 및 포즈 교육을 통해 자신감 있는 노년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표현한다.

모집은 내달 4일까지이다. 문의 051)622-9155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삼일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회·편집인 김계학
편집국장 조인호
부산지사장·직대 김명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553-2800
독자센터 02)721-9861
[illegible]

첨단 로봇 벡스코에 다 모인다

25일부터 나흘간 경진대회 · 12개 종목 2000명 참가

제4회 부산로봇경진대회가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다.

이번 경진대회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부산교육연구정보원, (사)부산과학문화진흥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지역본부 해양로봇센터, (사)부산로봇산업협회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다.

대회는 경연, 해양로봇, 체험, 공모 등 4개 분야 12개 종목에 최종 978개 팀 2000여 명이 참가, 로봇들의 댄스·격투·달리기 등 기초적인 로봇게임을 비롯해 고난도 첨단 기술 창의성·지적 능력을 겨룬다.

특히 지능형 로봇을 설계·제작해 창의성과 지적 능력이 우수한 로봇의 순위를 선정하는 로봇챔스톤챌린지 대회가 시범적으로 개최돼 로봇 기술 개발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예비 로봇전문가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로봇경연 분야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댄스 경연 및 배틀 대회 ▲장애물 경주 ▲라인트레이서 ▲보행로봇 이어달리기 ▲비전 창작 ▲3대3 보행로봇 축구 등 7종목의 경기가 진행된다.

해양로봇 분야에는 창작 로봇들이 해양 창작 미션 수행에 나서고 국내 최초 수상형 로봇키트를 기반으로 한 수상 장애물 레이, 공중 장애물 레이 종목에서 열띤 경합을 벌인다.

로봇체험 분야는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직접 로봇을 조립해 지정된 경로로 주행토록 하는 가족 체험 경기로 진행된다.

공모 분야는 로봇을 직접 설계 제작·전시 시연토록 해 대회 기간 현장심사를 통해 순위를 정할 계획이다.

대회 기간 중 동명대학교에서 개발한 공중키트 체험 코너 및 부산로봇산업협회에서 운영하는 로봇 전시관 등이 함께 운영된다.

부대 행사로는 부산대학교 로봇기술연구센터 주관으로 2013 지능로봇 및 응용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된다.

국제학술대회에는 영국·일본 등 11개국의 지능로봇 관련 분야 전문가 약 200명이 참가해 로봇 관련 논문 250여 편을 발표하고 강연을 벌일 예정이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뉴시스

창원터널 8중 추돌사고 24일 오전 9시55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터널 김해 방유에서 창원 방면 입구 약 10m 지점 1차로에서 차량 8중 추돌사고로 발생한 불을 소방대원들이 끄고 있다. 이날 사고 여파로 창원터널 창원 방면이 전면 통제됐다가 오전 11시께 풀렸다.
/경남소방본부 제공

한국어강좌 4기 수강생 모집

부산국제교류재단은 내달 7일부터 12월 7일까지 부산글로벌센터 강의실(국민연금부산회관 13층)에서 열리는 2013 BFIA 한국어강좌 4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4기 한국어강좌는 각 반 정원 20명 안팎을 모집해 입문에서 고급까지 수준별 과정으로 하루 90분씩 진행된다.

강좌는 평일은 주 1회 또는 2회 오전·오후·저녁반을 운영하고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2시30분까지 열린다. 수강료는 무료(교재비 본인 부담)이고 수강 신청은 24일부터 내달 1일까지 재단 홈페이지(www.bfia.or.kr)를 이용해 하면 된다.

부산우유 가격 기습인상 '쉬쉬'

"지역 소비자 우롱 행위"

부산우유가 추석 대목에 우윳값을 기습 인상해놓고도 소비자들에게 인상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부산우유는 국내 매출 1위 업체인 서울우유가 지난달 30일 1000㎖들이 가격을 220원 인상한 후 지난 9일 부산 경남지역 대리점에 공급하는 우윳값을 같은 폭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부산우유는 산하 대리점에는 10일부터 인상된 가격을 적용토록 하고서도 소비자들에게는 전혀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종전 마트에서 2300원씩 주고 구입하던 1000㎖들이 흰 우유를 220원이 오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 2520원을 주고 구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회사에서 생산되는 요구르트 등 80여 종의 유제품 가격도 평균 50~150원은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우유 한 관계자는 "최근 원유가 인상과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부득이하게 우유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히고 "서울·매일 등 중앙 업계가 아닌 지방의 소규모 업체에서 우윳값을 인상한 부분에 대해 굳이 홍보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각 대리점에는 공문을 보내 마트 등 편의점 직원들에게 인상 내역에 대한 홍보 교육을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산주부클럽 관계자는 "부산우유가 향토기업임을 내세우고 시민들에게 지역 업체 우유를 구매해달라고 홍보하면서 우윳값 인상 부분에 관해 전혀 알리지 않은 처사는 지역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부산우유는 지난해 흰우유 매출만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시스

부산대 정옥상 교수팀 새 초분자 합성 성공

연구결과 세계 유력지 게재

부산대학교 화학과 정옥상 교수 연구팀이 헬리스(나선) 형태의 짧은 다핵(多核) 금속 착물이 구형 관절(ball-joint type)처럼 작동하는 새로운 초분자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팔라듐은 은백색 금속으로 전성과 연성이 좋아 모든 금속과 합금을 이뤄 수소의 정제, 귀금속 등 화학반응의 촉매로 사용된다.

연구팀은 '나선형 메탈라사이클로헥산의 라세미 혼합물로 이루어진 구형 관절형 호스트-게스트 시스템 구현'에 관한 논문을 통해 헬릭스 형태의 초분자 결정을 분리해 이들 초분자체들이 용액 상태에서 새로운 메커니즘에 의해 마치 팔 관절이나 무릎관절처럼 움직인다는 것을 다양한 측정 방법을 통해 처음으로 밝혀냈다.

또 이번에 합성한 헬릭스 다핵 팔라듐 초분자체들은 최근 약제, 수소 저장체, 분자 스케일 반응용기, 분자 인식, 키랄 분리 등에 매우 유용한 물질로 인정받고 있는 혁명적 소재다.

한편 이번 연구는 정 교수팀의 이해리씨가 주 연구자로 진행했으며 연구 결과는 화학분야 세계 최고 유력지 중 하나인 안게반테 케미(Angewandte Chemie – International Edition, I.F 13.734) 9월 20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illegible]

부경대 나이지리아 수산연수과정 부경대학교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동원장보고관 리더십홀에서 나이지리아 수산 공무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이지리아 수산기술 정책 연수과정 입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과정은 나이지리아 농업부 소속 수산 공무원들에게 한국의 선진 수산 기술을 전수해 수산 정책 및 국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다미술제' 하루 1만명 몰려

지난해보다 무려 46%나 늘어 송도해수욕장 전성기 되찾아

올해 개장 100주년을 맞은 송도해수욕장이 2013 바다미술제 관람객들의 끊임없는 발걸음으로 과거 전성기의 모습을 되찾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달 10월 13일까지 '위드(With) 송도 – 기억·흔적·사람'이라는 주제로 30일간 개최되는 이번 축제로 개막일인 14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22일까지 송도해수욕장을 찾은 관람객은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추산 약 8만7990명, 하루 평균 약 1만 명의 관람객들이 송도해수욕장을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1년 같은 기간 6만4640명이 전시장을 찾은 것에 비해 약 46% 증가한 수치다.

조직위는 개막과 동시에 5일간의 추석 연휴가 이어진 점, 관람 지원 프로그램 및 공연 등 전시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 행사 등의 프로그램들이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여세를 몰아 2013 바다미술제 폐막 때까지 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아름다운 바다의 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관람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직위는 관람객들이 11개국 34점의 작품들과 축제 행사에 대해 느끼는 재미를 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관람 지원 프로그램과 공연 등을 선보이고 있다.

10월 13일까지 종합안내소에서는 리플릿과 가이드맵을 비치해 전시에 대한 안내 역할과 함께 도록과 티셔츠, 에코백 등의 기념품 판매 및 바다미술제와 부산비엔날레의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관 등 다양한 이벤트까지 제공해 관람객들에게 인기몰이 중이다.

온라인 관람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관람객들에게 전시와 작품·작가의 정보, 작품별 QR코드 서비스, 작품 음성 안내, 작품 배치도 등을 제공한다.

또한 여러가지공작소, 바다미술관 아트버스 등 축제 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일정과 송도해수욕장의 주변 시설 정보·교통 정보까지 제공해 전시장 방문 시 정보를 종합적으로 얻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다.

한편 여러가지공작소에서는 매 주말마다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단체들의 열정적인 공연들로 축제 분위기를 한껏 돋우고 있으며 박경원 전시감독이 직접 기획한 작품 앞에서 펼쳐지는 작품과 연계된 공연 일정 등도 준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송도해수욕장 방문 전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일정 확인을 한다면 2013 바다미술제를 두 배로 즐길 수 있다.

/황하은기자 hk@metroseoul.co.kr

올해 개장 100주년을 맞은 송도해수욕장은 지난 14일 막 오른 2013 바다미술제 관람객들이 하루 1만여 명씩 몰려 붐비고 있다. /부산비엔날레조직위 제공

여성 일자리 잡아라

내달 2일 박람회 – 250명 채용

부산시 여성회관은 여성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기업의 인력난을 덜기 위해 내달 2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여성회관 대강당에서 '좋은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남구와 수영구,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일자리 관련 주요 공공기관의 지원으로 추천된 우수 기업 50~70여 곳이 참여해 마련된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서비스, 사무, 제조업, 병원, 관광코디네이터,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25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뉴시스

불꽃축제 전야 콘서트

부산시와 현대자동차는 2013 부산불꽃축제 전야 행사로 '더 브릴리언트 콘서트 시즌2'를 내달 24~25일 이틀에 걸쳐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연다고 24일 밝혔다.

24일 공연에는 YB(윤도현 밴드), 드렁큰타이거(타이거JK·윤미래·비지), 에픽하이, 어반자카파, 10CM, 김예림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국내 정상급 뮤지션이 출연한다.

25일 공연에는 부활, 최정원&더 뮤즈, 김범수, 1K김동욱, 에브터스쿨, 장윤정&박애리 등이 참가해 뛰어난 가창력과 독특한 퍼포먼스로 환상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 참가를 희망하는 현대자 보유 고객은 현대자 홈페이지(www.hyundai.com) 이벤트 페이지에서 내달 14일까지 원하는 좌수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선진기업복지 컨설팅 아시나요?

Q 근로복지공단에서 선진기업복지(도입 지원) 컨설팅을 제공한다고요?

A 우리 공단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기 진작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등 복지 향상을 위해 선진국에서 효과가 검증된 기업복지제도인 선진기업복지제도(5대 주요 선진기업복지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 퇴직연금,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선택적 복지제도)"의 필요성과 효과를 널리 알리고 기업이 주요 선진기업복지제도를 쉽게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방문 컨설팅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500명 미만 기업으로, 인터넷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기업 회원으로 가입한 후 선진기업복지제도 기본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우리 공단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선진기업복지제도에 대한 방문 컨설팅을 제공해드립니다.

또 기본 컨설팅 제공 후 사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진기업복지제도에 대해 도입 의사가 있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심화 컨설팅을 신청하시고 방문 컨설팅을 받으시면 됩니다.

한편 방문 상담은 기본 1회, 심화 3회까지 가능합니다. 단 이전에 기본 컨설팅을 한 번이라도 받은 사업장(사업주설명회 교육 참석 포함)은 기본 컨설팅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제공

음주측정 후 "택시" 신통방통한 앱 등장

조선미 기자의 글로벌 이코노미

美 IT회사 브레소미터 개발

"한 잔 더 마시면 음주 단속에 걸려요. 택시 타고 가세요."

미국에서 애주가의 '생길 을 챙겨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나왔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것은 물론 만취한 '주인님'을 위해 택시까지 알아서 척척 불러준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IT회사 '브레소미터'와 '빅브렉'은 스마트폰에 연결된 음주 측정기를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앱을 개발했다.

브레소미터의 최고경영자(CEO)인 찰스 마이클 임은 "스마트폰 앱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인지 0.08%인지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0.01%가 나와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면서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앱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음주 측정기는 자동차 열쇠 정도 크기로 휴대전화의 이어폰 연결 구멍에 꽂도록 돼 있다. 측정기에 대고 숨을 내쉬면 디지털 센서가 알코올 농도를 측정, 앱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앱은 위치추적장치(GPS)로 운전자의 위치를 파악해 택시를 부른다.

음주 측정 앱이 나오자 상당수 국내외 시민들은 '똑똑한 앱이 나왔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하는 미국인 니아 엔티스(21)는 "아슬아슬하게 술을 마시면서 운전을 해야 할지 걱정할 때가 많았는데 이제 한시름 놓아도 될 것 같다"며 미소 지었다.

국내 제약회사 직원 김대언(34)씨는 "업무상 술을 자주 마셔야 하는 영업사원들에게 유용할 것 같다"면서 "개인이 앱을 구입하는 것보다 회사에서 구입해 직원들에게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seonm @

미국 IT업체 '브레소미터'가 개발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기를 스마트폰에 연결한 모습 /인터넷 디지털 트렌즈

테러범 진압 앞둔 케냐 군경 케냐 군경이 나이로비 쇼핑몰 테러의 무력 진압에 돌입한 가운데 23일(현지시간) 보안요원들이 쇼핑몰 밖에서 총을 겨눈 채 건물 안의 동정을 살피고 있다. 소말리아에서 나흘째 이어진 테러 인질극은 이날 군경의 진압 작전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쇼핑몰에 갇힌 테러범 10~15명 중 1명은 사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 연합뉴스

中 고속철 탄 흡혈빈대

네티즌들 인터넷에 사진 올려…"위생관리 엉망" 비난

중국에서 사람의 피를 빨아 먹는 드라큘라 빈대가 수년 만에 다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중국 경화시보 등 현지 언론은 흡혈 빈대가 다시 창궐하면서 베이징~상하이 구간 고속열차의 객실에서도 발견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네티즌은 "베이징~상하이 고속철 좌석에서 흡혈 빈대를 여러 마리 봤다"며 인터넷에 직접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또 최근 고속열차를 이용했다는 승객들은 "흡혈 빈대에 물려 온몸이 가렵다"고 주장했다. 피해 승객들은 "최첨단 고속열차라고 자랑하더니 위생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속열차에서 발견된 흡혈 빈대들은 승객들의 옷이나 짐을 통해 '무임승차'한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질병관리본부는 "올여름부터 흡혈 빈대들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일반 주택은 물론 고속열차 객실에서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흡혈 빈대에 따른 각종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빨아 먹는 빈대는 흑사병 매개 기생충을 비롯해 다양한 감염성 질환을 옮길 수 있는 위해 해충이다. /조선미 기자 seonm@metroseoul.co.kr

SNS 통해 애인 만들려면 트윗 224번·페북 70번 기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휴대전화로 연인을 만들려면 메시지는 몇 개나 보내야 할까?

24일 온라인 전기·전자 제품 판매업체 픽스마니아에 따르면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까지 평균적으로 필요한 트위터 메시지는 224개, 페이스북 메시지는 70개, 일반 문자 메시지는 163개로 나타났다.

또 e메일은 최소 37번 보내고 전화는 30통 이상 걸어줘야 공식적인 연인으로 선포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이 같은 'SNS 구애'는 여성보다 남성이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호감이 있는 여성에게 연 평균 517개의 페이스북·트위터 메시지를 남겼다. 반면 여성이 남긴 메시지는 평균 386개였다. /조선미 기자

market index <24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2007.10	527.21	2.82	1074.00
(-2.31)	(+0.22)	(+0.01)	(-1.00)

가을엔 햇머루 포도가 달콤해

2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일반 포도보다 당도가 높은 햇머루 포도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26일부터 경산과 영천에서 수확한 햇머루 포도 1박스(3kg)를 1만5000원에 판매한다. /뉴시스

'외인 8조 순매수' 왠지 찜찜

원화강세 유발·미 출구 전략 땐 급격한 매도 '독'… 환투기 세력 유입 여부 '촉각'

미국의 출구전략이 임박하면서 일부 신흥국에서 이탈한 수조원대의 외국인 자금이 유망 신흥국으로 떠오른 한국 시장으로 급속히 유입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환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이 가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비상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증시 전문가들 역시 외국인의 순매수 행진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나흘째 2000선을 지켰다.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 세를 보이면서 한때 1990선까지 밀리기도 했으나 외국인이 매수 우위로 돌아서면서 보합권 혼조를 거듭한 끝에 2000선에서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이로써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외국인의 20거래일 연속 누적 순매수 규모는 총 8조원을 훌쩍 넘었다.

금융 당국과 시장은 외국인 자금 유입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내 증시로 들어온 자금이 갑작스럽게 빠져나가면서 한국의 금융시장을 교란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원화 강세로 연결돼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훼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시장의 쏠림현상이 워낙 급하게 바뀌는 만큼 유입된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될 때도 대비해야 한다. 원화 가치가 오르면서 수출이나 대외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당국으로선 경계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정 기간 원화 강세를 예측한 환투기 세력의 자금 유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식시장에 자금이 급속히 들어오면서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절상될 가능성이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1074원 밑으로 밀리고서 이날 1072.2원까지 하락했다.

증시 전문가들 역시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우려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외국인 자금은 당분간 계속 유입될 전망이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 당장 10월과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연지 키움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규모가 지난 1월 초에 기록한 최대치(2009년 이후 기준)를 약 5000억원만 넘기는 상황"이라며 외국인이 향후 국내 주식을 큰 폭으로 더 사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정기자

불안한 동양증권 고객들 예탁금 인출 긴 행렬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 여파로 동양증권 고객들의 자금 인출이 줄을 잇고 있다. 24일 경남 창원시내 한 동양증권 영업점에 예탁금을 찾으려는 고객들로 북적거리고 있다. /연합뉴스

동양그룹, 동양파워도 판다

주요 계열사 지분 매각 추진

'돈 되는 건 다 판다!'

동양그룹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알짜 기업인 동양파워 지분을 전량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동양그룹은 동양, 동양레저,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 동양파이낸셜 등이 약 1조1000억원대의 연내 만기 도래 기업어음(CP)을 보유하고 있다.

동양그룹은 동양매직과 섬유사업부, 레미콘 공장 등 핵심 사업부 매각 및 동양증권 등 주요 계열사 지분도 내다 팔기로 했다.

또 현재 지분 100%를 보유한 동양파워 지분을 통째로 팔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동양파워는 8000억~1조원에 달하는 지분 가치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동양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동양증권에서 고객 이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여타 계열사의 부도설이 잔이되면서 불안해진 투자자들이 잇따라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해지하고 펀드를 환매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 측은 투자자의 불안을 진정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CMA 자산과 주식, 위탁예수금, 펀드, 신탁 및 채권은 모두 별도의 공기업 및 우량 기관에 보관되고 있어 100% 보호가 된다고 밝혔다.

뉴스 & 뉴스

완구 코너에도 '쿨레디' 열풍

24일 서울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어린이들이 RC카를 살펴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최근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쿨레디(놀아주는 아빠)를 위한 아동 완구 대전을 다음달 1일까지 실시한다. /홈플러스 제공

혹평 비웃는 아이폰5S·5C 발매 첫주말 900만대 팔려

● 전문가들의 혹평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5S·5C가 첫 주말 900만여 대나 팔려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아이폰5S 골드 모델의 경우 미국의 경매 사이트인 이베이에서 1만100달러(약 1086만원)에 거래되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2007년 오리지널 아이폰, 2008년 아이폰3G, 2009년 아이폰3GS, 2010년 아이폰4, 2011년 아이폰4S, 2012년 아이폰5에 이어 판매 신기록 행진을 7년째 이어나갔다.

아이폰5S·5C의 판매 수치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500만~800만 대를 훌쩍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아이폰5 발매 당시 첫 주말 판매 실적(500만여 대)의 두 배에 달한다. /이국명기자

쏘나타 내수 300만대 돌파

● 현대차의 중형 세단 쏘나타가 내수 모델 최초로 판매 300만 대를 돌파했다.

2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첫 출시 후 11년 만인 1996년 내수 누적 판매 100만 대를 처음 돌파한 쏘나타는 꾸준한 인기를 보이며 10년 만인 2005년 200만 대를 달성한 데 이어 다시 8년 만에 300만 대를 넘어섰다. 8월말까지 쏘나타의 누적 판매 대수는 301만8830대다. 지난해 9월에는 글로벌 누적 판매 600만 대를 돌파했다. /박성훈기자

팬택 직원 800명 무급휴직

● 팬택 직원 800여 명이 6개월간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이는 24일 이 회사의 박병엽 부회장이 전격 사퇴한 뒤 회사 차원에서 계획한 고강도 인력 조정의 일환이다.

박 부회장은 국내외 스마트폰 시장에서 실적 부진을 이유로 이날 오후 은행 채권단에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박 부회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사의 표명도 일종의 '승부수'가 아니냐는 관측이 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알뜰폰, 우체국서도 가입된다

27일부터 유니컴즈 등 6개 중소업자 수탁판매

기존 이동통신 대비 최대 50% 저렴한 알뜰폰(MVNO)을 27일부터 우체국에서도 만날 수 있다.

24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27일부터 전국 226개 우체국에서 알뜰폰 수탁 판매를 실시한다. 이번에 알뜰폰 수탁 판매를 하는 업체는 에넥스텔레콤, 유니컴즈, 아이즈비전, 에버그린모바일, 프리텔레콤, 머천드코리아 등 6개 업체다.

6개 업체 모두 중소 알뜰폰 사업자로, CJ헬로비전·SK텔링크 등 대기업 계열 알뜰폰 업체들은 자진해서 이번 수탁 판매에서 제외됐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이번 우체국 수탁 판매 사업에는 자진해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알뜰폰 유통망 확대는 우리의 과제다. 소비자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알뜰폰을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우체국 수탁 판매를 통해 일부 알뜰폰 사업자들이 유통망 확대라는 기반을 잡았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이 알뜰폰을 구입하기란 쉽지 않다.

현재 알뜰폰은 홈쇼핑이나 온라인 사이트, 오프라인상에서는 GS25·세븐일레븐·CU 등 일부 편의점과 홈플러스 전자랜드·하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양판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유통망이 적은 만큼 일반 소비자들이 알뜰폰을 접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알뜰폰 사업자들도 오프라인 판매망을 늘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에넥스텔레콤이 대리점을 1곳에 유지하는 데 성공했으며 일부 이통 3사 대리점을 통해 위탁 판매를 하고 있지만 각 대리점에선 판매에 신경 쓰지 않는 상황이다.

에넥스텔레콤 관계자는 "우체국 직원 교육을 했는데 여전히 알뜰폰을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 우체국 수탁 판매의 최대 목적은 가입자 증대보다도 소비자에게 알뜰폰 서비스를 알리고,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알뜰폰 업계는 이날 사단법인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출범식을 개최하며 알뜰폰 혁신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회는 앞으로 가계 통신비 절감, 알뜰폰 전 국민 캠페인 등을 공동으로 마케팅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삼성 '후계 밑그림' 들췄다?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재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그룹이 제일모직의 패션사업 부문을 삼성에버랜드에 이전하기로 결의하면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관측 때문이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제일모직 패션사업 부문의 삼성에버랜드 이전은 삼성그룹의 상황에서 단순한 사업 조정으로 해석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에버랜드가 삼성그룹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사이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을 삼성그룹 후계 구도와 연관 지어 바라보는 이유다.

가장 유력해 보이는 삼성그룹의 분할 방안은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자 및 금융계열사를 맡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이 각각 서비스·중화학계열, 패션·광고계열을 맡는 것이다.

제일모직이 패션 사업을 에버랜드에 넘기자 일각에서는 이서현 부사장이 패션에서 손을 뗀다는 전망도 제기됐지만, 미국 패션디자이너협회(CFDA)의 이사회 멤버로 글로벌 패션계에 넓은 인맥을 갖고 있는 이 부사장이 패션과 멀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부민기자

삼성 갤럭시 노트 3 월드 투어 베이징 달궜다 삼성전자는 24일 중국 베이징 스아오얀쓰에서 중국 현지 미디어와 관계자들을 초청해 '삼성 갤럭시 노트 3 월드 투어 2013'을 개최, 취재기자들이 제품을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은행도 투자일임 허용 추진

금융 당국이 은행에도 투자 일임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임업이란 고객 자산을 금융회사가 모두 위탁받아 투자하는 것이다. 현재 증권업과 보험업만 허용하고 있으며 주요 프라이빗뱅킹(PB) 업무 중 하나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최근 은행들이 비공식 간담회에서 고객 서비스 확대를 명분으로 투자 일임업 허용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금융 당국도 구체적인 실천 방향에 대한 계획은 은행들에 요청했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수익원이 절실한 은행들이 PB 사업으로 파생되는 각종 수수료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투자 일임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자본력과 인지도를 갖춘 은행이 시장에 진출할 경우 자금 이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투자 일임업은 2007년에도 허용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증권업계의 강한 반발로 도입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김민지기자

긴장하라! 면접장 가듯

취업 관문으로 알려진 구직자들의 마음을 녹이는 채용박람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채용박람회는 취업에 필요한 채용 정보와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없이 참가했다가는 소득 없이 발길을 돌리기 십상이다.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의 도움을 받아 채용박람회 100% 활용 노하우를 알아본다.

/이국명기자 kms@metroseoul.co.kr

◆사전 정보 파악은 기본=행사기간이 3~4일 정도로 짧은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채용박람회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박람회 참여 기업과 채용 공고 등을 공개한다. 또 기업에서 제시한 준비 서류를 꼼꼼히 챙긴다면 준비된 구직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다.

◆맞춤형 이력서를 준비하라=채용박람회는 한 장소에서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을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그러나 동일한 이력서를 여러 업체에 제출하다가는 성의 부족으로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다. 미리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를 정하고 기업 특성에 맞게 이력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채용박람회 100% 활용 요령

인사실무자 볼 기회 많아
기업 정보 사전에 체크해
맞춤이력서·복장 준비를

◆사전 등록도 필수=대형 채용 박람회의 경우에는 사전에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장에서 등록할 경우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박람회장에는 최대한 일찍 도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기 있는 박람회는 시작하기 한두 시간 전부터 길게 줄을 서는 경우가 많다.

◆옷차림도 전략=박람회장에 들어설 때는 실제 면접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 인사 실무자가 부스에 직접 나와 현장 면접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복장이나 자세 등 면접에 임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화 박람회를 노려라=최근 들어서는 박람회 종류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업종과 직종은 물론 지역과 대상별로 특화된 박람회가 많이 열리고 있다는 얘기다. 자신에게 적합한 채용박람회를 골라 참가한다면 바늘구멍 취업문을 뚫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달초 대전 유성구 도룡동 대전무역전시관에서 열린 채용박람회에 수많은 구직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뉴시스

마들렌·스콘, 마가린 하기 나름

김현정 기자의 투잡 체험기

제과제빵 ②

제과·제빵 직장인 취미반의 두 번째 시간에는 마들렌과 스콘에 도전했다. 일반 빵집뿐만 아니라 카페 디저트로도 단골로 판매되는 제품이므로 카페 창업을 준비하는 수강생들이 배우기에 실용적이다.

강사가 나눠준 레시피를 보니 들어가는 재료는 첫 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마가린을 넣는 경우에 다른 점에 유의해야 한다.

쿠키의 사브레는 마가린을 실온에서 30분 이상 둔 뒤 설탕·소금과 섞어주며 크림처럼 만들었다면, 마들렌은 마가린을 중탕으로 녹여 여기 나머지 재료를 반죽에 첨가한다.

스콘은 마가린을 냉장고 등에 넣어 차갑게 만든 다음에 박력분과 베이킹파우더와 같은 가루 재료를 체 친 위에 마가린 덩어리를 얹어놓고 고기 다지듯이 조개 콩알 크기로 잘게 나눈다.

제과 제빵에 들어가는 재료는 대체로 비슷하지만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맛과 식감이 풍부해지는 점을 잘 숙지하고 접근해야 한다.

부재료 역시 마들렌에는 레몬 껍질을 넣고 스콘에는 초코칩을 넣었으나 취향에 따라 나만의 부재료를 개발해 넣는다면 이색 카페 디저트로 손색없다.

제과제빵 수업에서 한 수강생이 저울에 각종 재료의 양을 달아보고 있다. /손진영기자

마가린을 넣은 가루 재료와 부재료 등을 혼합해 반죽을 만든 다음, 마들렌 반죽은 실온에 20분 정도 두고 스콘은 냉장고에 30분 이상 넣어놓는다.

반죽이 알맞게 완성되면 마들렌은 짤주머니에 넣고 특유의 마들렌 모양이 새겨진 판에 하나씩 채워넣는다. 이때 마들렌 한 개씩에 반죽을 70~80%만 채우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오븐에서 구워질 때 반죽이 부풀어오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듯 채워넣어야 제대로 모양을 만들 수 있다.

많이 판매되는 제품을 만들어 보니 제과 제빵에 대한 자신감이 한층 커졌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기능사 자격증 준비반을 수강할 예정이다. /hkim1@

취업포털 커리어와 함께하는
주간 인기 취업검색어

1위 취업박람회 현장취업
2위 취업사기 예방법
3위 생산직 취업
4위 대기업공채 마감 일정
5위 취업 필수 자격증
*18~24일 인기검색 순위

주간 채용캘린더

25(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신입), 고려아연㈜(경력), 호쌍굿스(신입), 포스코(신입), 아이디스(어이티)
26(목)	㈜휴테스(경력), 신성대학교, 대림그룹(신입)
27(금)	KOTRA, 한화제약(신입), 가온기술연구원
28(토)	다우지엔씨, 현대아이에이치앤씨
29(일)	금호전기㈜, LG CNS(경력)
30(월)	KB금융지주(신입), LG화신(신입), 삼익그룹(신입), 센터자원
1(화)	한빛 KDN(신입),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서류마감일 기준
* 자료제공: 커리어(www.career.co.kr)

취업준비생 토익점수 평균 643점

올 상반기 토익시험 응시생 가운데 취업 준비생들의 평균 점수는 643점(990점 만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YBM한국토익위원회는 올 1~6월 토익 전체 응시자 162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취업 준비생의 토익 평균은 2009년 625점, 2011년 637점, 지난해 638점을 거쳐 올 상반기 643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전공별로는 교육학 전공자의 토익 점수가 평균 705점으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사회과학·법학·경제학·경영학 전공 682점, 인문학 671점, 자연과학 624점, 공학 616점의 약·간호학 599점 순이었다.

토익스피킹 응시자도 늘고 있다. 토익과 토익스피킹 점수를 모두 확보한 취업 준비생은 2009년 6만9155명에서 지난해 14만3476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총 16만명이 응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국명기자

하멜 따라 간 조선 아이

장편동화 '나는 바람이다' 1·2권 펴낸 김남중 작가

'바람이 불었다'로 시작하는 김남중 작가의 새 장편동화 '나는 바람이다'. 조선시대 여수의 바닷가 마을에 살던 13세 소년 해풍은 바람을 따라 조선을 탈출하는 네덜란드인 하멜 일행을 따라 먼먼 바닷길을 나선다.

"해풍이의 모험을 우리 시대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었다"는 김남중 작가는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출간간담회에서 실제 하멜의 발길을 따라 취재하기 위해 네덜란드에서 만든 범선 코리아나호를 타고 대한해협을 건넌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서지와 옛것이 충돌하던 17세기 하멜이 살았던 조선에 관심을 가지다. 하멜과 조선 아이가 우리 땅을 떠나 일본을 보고 또 멀리 유럽까지 볼 수 있다면 어땠을까 상상했어요. 글은 결의로 여수와 제주, 나가사키를 누비고 또 누볐죠."

역사, 보통 사람, 자연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써온 그는 아동문학 작가 중에서도 힘있는 이야기꾼으로 통한다. 이번엔 모험이란 소재를 추가해 선 굵은 이야기를 뽑아냈다.

그는 "학교와 집, 학원이라는 '감옥 삼각형'에 갇힌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통해서라도 경계 너머를 꿈꾸게 하고 싶었다"며 "바다를 벽이 아니라 길로 인식하는 순간 세상이 수 천배 확대돼 다가오는 경험을 어른들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작가는 해풍이를 끌고 다시 자카르타로 떠난다. 자카르타에서 인도양과 희망봉을 지나 네덜란드로 가는 이야기를 3부 바닷길을 따라 북미로 가는 모험담은 4부에 담을 계획이다.

24일 '나는 바람이다'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김남중 작가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비룡소 제공

"쳇바퀴 갇힌 아이들에게 바닷길 모험 꿈꾸게 하고파"

/박효순기자 hspark@metroseoul.co.kr

책속 한 컷

사랑은 '눈 먼 게임'

눈을 가린 채 발그레한 볼로 누군가를 더듬으며 찾고 있는 여성. 돌돈 모습이지만 계단 위에서 자칫 발을 잘못 디딜까 아슬아슬하다.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의 작품 '까막잡기 놀이'(1753~1756)는 당신이 찾아 헤매고 또 어기저 없게 빠져드는 '눈먼 사랑'이란 건 이처럼 위태하다 고 말하는 듯하다. 낭만적 사랑에 대한 관념이 싹트기 시작한 18세기 유럽에선 에로틱한 행위를 공공연하게 허용하는 이 같은 놀이가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했다. 사랑이 유혹의 기술과 언어의 기교를 전략적으로 동원해야 하는 에로틱한 게임이 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다. – 사랑의 그림 (최정은/세미콜론) 中 –

/박효순기자

새로 나온 책

인문

미학 에세이 진중권/씨네21북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예술까지 예술 철학 정치 사회를 아우르는 미학적 사유의 장을 펼친다. 정치논객 이전에 미학자로서 저자가 던지는 세상에 대한 질문, 그에 대한 쉼없는 고찰과 그의 관점을 만날 수 있다.

절망의 인문학 오창은/이매진

뜨거운 인문학 열풍 속에서 무너진 인문학의 현실을 살핀 인문학 현장 보고서다. 비(非)제도 비평가 오창은과 52명이 내부 ... 거은 인문학 열풍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중요한 인문학 생산지인 대학 내부의 현실을 비판한다. 현장의 실감한 보고와 심층 인터뷰, 비평문 형식으로 구성됐다.

정치/사회

새로고침-열 번째 인터뷰 특강 은수미 외/한겨레출판사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은 인터뷰 특강은 현실에 빠진 동시대의 벗들을 위한 응원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새로고침을 주제로 삼았다.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낙담하고 번번이 좌절을 맛보는 사람들의 새로고침 욕구, 그동안의 잘못을 지우고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기에 충분하다.

자기계발

힐링 코드 31 그레그 브레이든/시그마북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치유해야 희망과 가능성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비결,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비결, 더 나아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비결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양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보여준다.

실용

미스터 베이커 양재철 외/한즈미디어

뽕과 패션의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좋은 음식이 건강한 삶을 만들고, 건강한 사람은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신념을 가진 6명의 베이커 이야기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패션 브랜드 커스텀멜로우가 베이커의 열정과 빵에서 영감을 받아 이번 시즌 의상 콘셉트를 적용하고 베이커는 커스텀멜로우를 위한 빵 레시피를 제공한다.

마술교육 가이드 기본편 조은희/삼호미디어

현직 마술학과 교수진과 마술강사 13명이 모여 마술을 교육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교육기관 출강을 위한 1년 분량 세부 강의 계획서를 수록하고 생활 마술, 소도구 마술, 카드 마술 등 총 100가지 마술 교육을 소개했다. 1300여 장의 상세 사진과 설명을 보며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펜과 함께한 열한 번의 건축 수업 권신/펜/컴처그라퍼

건축에 흥미와 관심은 있지만 딱딱한 건축 이론서를 펼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건축 초보를 위한 책이다. 공간 및 재료, 그리고 나만의 건축관 등 현대 건축 4가지 핵심 키워드를 테마로 건축을 보다 자세히 알아가는 과정을 생생한 현장 수업이라는 방식으로 담고 있다.

어린이

한 권으로 읽는 세계의 신화와 전설 DK 편집부/주니어RHK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의 신비에서 고대 그리스 신화까지, 동서양을 넘나드는 전 세계 신화와 전설을 한번에 만날 수 있다.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지만 세계 곳곳의 문화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신비로운 마법, 신화와 전설의 세계를 담고 있다.

한국 유산답사 유한균/사계절

유네스코가 지정한 한국의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중 14개를 엄선했다. 고인돌, 석굴암부터 종묘제례악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까지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모두 망라된 한국 유산의 기록을 사진, 지도, 1:1규 일러스트레이션 등 다양한 비주얼 자료로 보여주고 있어 우리 유산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깨준다.

셜록과 함께 스릴 넘치는 수능 어휘정복

화제의 책

셜록 홈즈 Y 베스트 컬렉션 세트 아서 코난 도일/미다스북스

셜록 홈즈 시리즈는 짜임새 있는 구성과 매력적인 문체가 빚어내는 '완벽한 고전'으로 통한다. 더불어 치밀하면서도 대담한 사건 묘사는 단순한 추리소설을 넘어 논리력과 창의력, 독해력을 키우는 양서로 손색이 없다.

'셜록 홈즈 Y 베스트 컬렉션 세트'는 수능시험 국어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수능 필수 어휘 문더해 새롭게 구성했다.

총 60편의 셜록 홈즈 시리즈 중 저자 코난 도일이 엄선한 12편의 작품을 골랐으며, 셜록 홈즈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출간 당시의 삽화를 빠짐없이 수록했다. 또한 본문 속에 수능 빈출 단어를 포함시키고, 한자 뜻풀이까지 더해 어려운 단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단어의 여러 뜻과 함께 자주 쓰이는 뜻, 유의어, 반의어 등을 각 편 마지막에 덧붙여 넣었다.

출판사 측은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은 물론 국어 실력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초등·중학생까지 이 책을 단계별로 학습하면 논리력·창의력·독해력과 함께 수능 어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지원기자 jp-vs@

metro entertainment

Star bag

댄스곡으로 내달 4일 컴백

가수 서인영이 강가린 댄스곡으로 돌아온다.

소속사는 24일 "올봄 발라드 가수로 변신했던 서인영이 다음달 4일 컴백한다"면서 "복귀에 앞서 댄스 장르의 신곡 '나를 사랑해줘'의 1차 티저를 오늘 음원 사이트와 유튜브, SNS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다이나믹듀오의 개코가 피처링과 랩 작사에 참여했다.

'SNL코리아'서 19금 콩트

글래머 가수 지나가 tvN 'SNL 코리아'에서 19금 콩트를 선보인다.

tvN은 24일 "지나가 호스트로 나설 28일 방송에서 생애 첫 라이브 코미디쇼에 도전한다"면서 "이 프로그램 특유의 '19금 섹시 '병맛' 유머 코드는 물론이고 재기 발랄한 셀프 패러디와 디스 등의 콩트로 파격적인 모습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운드 ~'로 뮤지컬 도전

가수 소향이 '사운드 오브 뮤직'으로 뮤지컬에 처음 도전한다.

제작사는 24일 "12월 6일 대구를 시작으로 내년 1월 4일 서울에서 올려지는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에 소향이 여자 주인공 마리아로 낙점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MBC '나는 가수다'를 통해 스타덤에 오른 소향은 "오래 전부터 꿈꿔왔던 작품이다. 내 삶이 녹아있는 마리아를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상속자들' 美 로케 현장 공개

배우 이민호(사진 오른쪽)와 박신혜(왼쪽)가 다음달 9일 방영될 SBS 새 수목극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상속자들'의 미국 로케이션 촬영 현장을 공개했다.

이들은 이달 한 달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의 말리부 비치와 할리우드 거리를 넘나들며 미국 현지 로케이션 일정을 소화한다. 이와 관련해 8일 캘리포니아주의 한 아몬드 농장에서 스프링클러의 물줄기를 배경으로 남녀 주인공이 만나는 장면을 촬영했다.

MBC 월화사극 '구암 허준'의 종영을 사흘 앞둔 24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주혁(41)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대뜸 "올해 배우들 중에서 내가 가장 힘들었을 것"이라고 그간의 고생을 토로하며 웃었다. MBC가 처음으로 월화사극을 파격 편성하면서 사극을 주 5일 방송에 맞춰 촬영하는 극한의 강행군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박진형기자 jak0427@metroseoul.co.kr

"사극의 '사'자만 들어도…"

'구암 허준' 김 주 혁

#정신력으로 버틴 나날

평소 솔직한 직설 화법이 인상적인 김주혁은 이날도 "지난해 출연한 MBC '무신'에 이어 사극을 2년 연속 했더니 확 늙어버렸다. 화면을 보면 '나도 늙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드라마를 잘 보지 않았다"며 절절했다.

"오로지 정신력으로 버텼어요. 초반 출연 분량이 80~90%라서 정말 힘들었죠. 그런데 연장까지 들어가니 미치겠더라고요. 이젠 16회 분량의 미니시리즈를 찍는다면 일도 아닐 것 같아요. 우리 후속작에 출연할 배우들이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하하하."

이번 출연으로 1975년 MBC '집념'에서 허준을 연기한 아버지 고 김무생의 대를 이어 같은 인물을 연기했다. 뜻깊은 기록을 세운 그는 "사극은 힘들어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버지 생각에 출연을 결정했다"면서 "출연 후에는 내가 힘들 때마다 한약은 생각할 정도로 격려해준 동료들 덕에 버틸 수 있었다"고 고마워했다.

#허준에 몰입 떠나보낸 눈물

종영을 가장 아쉬워한 건 어머니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줄곧 어머니를 모시고 둘이서 살고 있는

촬영 강행군 확 늙어 가장 힘들었던 작품 침 뽑을 줄은 알아요

그는 "어머니가 '매일 아들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는 낙으로 올해를 보냈는데, 이젠 그 낙이 없어지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털어놨다.

김주혁 역시 겉으로는 힘든 촬영이 끝나서 속시원하다고 하면서도 허준을 떠나보내는 아쉬움이 적지 않아 보였다. "허준에 몰입해 살아보니 그의 감정에 빠져 우는 장면이 아닌데도 울 때가 많았다. 촬영은 힘들었지만 대본이 좋아서 재미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명의학에 대해 배운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침 놓을 줄은 모르고 뽑을 줄만 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래도 1998년 SBS 8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이후로 가장 힘들게 촬영했다는 이 작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배운 점도 많았다.

"고생한 만큼 보람이 많아요. 저 역시 많이 변했죠. 정신력 하나만큼은 는 것 같아요. 또 주연배우로서 현장 분위기를 책임지면서 나이 지긋한 선배들과 잘 지내는 법을 터득한 점도 수확이죠. 예전엔 대하기가 어려웠는데 한결 편해졌어요."

#악역 캐릭터 하고 싶어

또 사극에 출연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사극의 '사'자도 듣기 싫은 듯 난색을 표했지만 이내 "연산군이나 수양대군 같은 매력 있는 악역이라면 또 해보고 싶다"고 배우 본능을 드러냈다. 이어 "다만 내년은 말고 내후년에 해보고 싶다"고 웃으면서 조건을 달았다.

사극에선 진득 무게를 잡고 나왔지만 평범한 남자다. 2년간의 사극 촬영에 지쳐 올 하반기는 쉴 계획이라는 그는 "촬영이 끝나서 좋긴 하지만 할 게 없어서 슬프다. 2년 동안 촬영하느라 바빠서 사람들과 못 만났더니 이젠 연락도 안 와서 외롭다. 쇼핑하러 일본에 여행 가고 싶은데 방사능 때문에…"라고 말을 흐렸다.

사진/나무엑터스 제공 디자인/윤여오

tvN
지구 최대의 위기에 맞서는
별난 가족들의
내공(?)이 터졌다!
tvN 일일시트콤
감자별
2013QR3
매주 월~목 밤 9시 15분 I 9월 23일(월) 첫방송

유아 성폭행 치유 얘기하다

film review

조성준 기자 whatnme@metroseoul.co.kr

■ 소원

눈물·웃음 잘 버무린 작품 라미란 경제적 코믹 연기

비 오는 어느 날, 초등학생 소원(이레)은 학교 앞 골목길에서 술 취한 아저씨에게 끌려가 변을 당한다. 공장 근로자인 아빠 동훈(설경구)과 문방구 주인인 엄마 미희(엄지원)는 생업을 접다시피 하며 딸의 치료를 위해 애쓰지만, 소원은 다친 마음을 좀처럼 열지 않는다. 이들 가족에게 평안했던 일상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다음달 2일 개봉될 '소원'은 입에 담기도 불편한 유아 성폭행을 정면으로 응시한다.

지금까지 이 같은 소재를 다룬 외국 영화들은 꽤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장르 영화에서 자극적인 이야깃거리로만 활용됐을 뿐,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치유 과정을 담담하게 어루만지는 데는 다소 소홀했다. '소원'이 다르게 느껴진다면 사건만큼이나 등장인물들의 상처 극복에 초점을 맞춰서일 것이다.

극중 소원의 일상 복귀 과정이 중요하게 그려지는데, 눈물 범벅의 동정 어린 시선으로만 접근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바로 연출자인 이준익 감독이 가진 특유의 '버버살살' 연출력에서 비롯된 미덕이다.

이 감독은 '황산벌' '왕의 남자' '라디오스타'가 그랬듯 어깨에서 힘을 뺄수록 좋은 결과를 얻곤 했다. 감정이 최고조에 이르는 장면에서 오히려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이 감독의 대표적인 장기가 이번 영화에서도 어김없이 빛을 발한다.

주요 출연진의 고른 호연은 눈물샘을 자극하다가도 간간이 미소를 짓게 한다. 특히 미희를 보살피는 영석 엄마 역의 라미란은 대단히 경제적인 코믹 연기로 엄표를 찍는다. 12세 이상 관람가.

★ 보르코시건 시리즈 ★

명예의 조각들

21화 글·그림 이기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박찬경 감독, 원수진 프로그래머, 조직위원장인 김문수 경기도지사, 집행위원장인 배우 조재현이 24일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제공

'만신' DMZ영화제 개막작

박찬경 연출 – 분단 아픔 보듬는 힐링무비

문소리 주연의 영화 '만신'이 올해 5회째를 맞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한국 영화로는 최초로 개막작으로 선정됐다.

영화제 측은 24일 사당동 아트나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개막작을 발표했다. 박찬경 감독이 연출한 '만신'은 김금화 만신의 일대기를 통해 질곡의 현대사를 응시하고 그 고통을 무속의 힘으로 어루만지는 영화다. 문소리를 비롯해 류현경과 김새론이 각기 다른 나이대의 김금화 만신을 연기했다.

박찬경 감독은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의식하고 주목하게 됐다는 데서 '만신'을 개막작으로 선정한 것 같다. 이번 영화는 더 많은 관객이 볼 수 있도록 문소리·류현경·김새론 등 잘 알려진 배우들을 섭외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평화·생명·소통을 키워드로 한 제5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는 민족과 종교 분쟁을 비롯해 환경오염, 청소년 문제 등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을 소재로 35개국에서 출품된 119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총 상금이 3650만원인 경쟁 부문은 국제 경쟁(10편), 한국 경쟁(6편), 청소년 경쟁(7편)으로 나뉘어 수상작을 가린다.

비경쟁 부문에서는 영국 노동영화의 상징인 켄 로치 감독의 다큐멘터리를 비롯해 멜로드라마의 대가 막스 오퓔스, 프랑스 누벨바그를 대표하는 장 뤼크 고다르 등 거장들의 다큐멘터리를 만나볼 수 있다.

특별전에는 정전 60주년 특별전, 라트비아 출신 다큐멘터리 감독 헤르츠 프랑크를 추모하는 '헤르츠 프랑크 회고전', 중동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다큐멘터리를 조명한 '중동 특별전'과 '남아프리카공화국 특별전' 등이 열린다. 이외에 다큐멘터리의 경향을 담은 '비욘드 다큐', 심야에 영화를 볼 수 있는 '다큐 나이트' 등이 신설됐다.

이번 영화제는 17~23일 임진각 캠프 그리브스와 경기 고양 롯데시네마 라페스타에서 열린다. /유순호기자

정기시험과 **100%** 동일한
퀄리티와 난이도~

ETS TOEIC 공식수험서 시리즈

▶ 입문서 ▶ 종합서

▶ 파트별 실전서 ▶ 종합 실전서

▶ 토익스피킹 종합서 ▶ 토익 필수어휘 ▶ 무료 어플(ETS TOEIC Book App)

PHOTO

러블리 보헤미안걸 이민정이 결혼 후 첫 화보에서 매혹적인 자태를 뽐냈다. 지난달 이병헌과 결혼한 그는 한 패션매거진의 10월호 화보에서 평소의 청순한 이미지를 벗고 로맨틱한 보헤미안으로 변신했다.

▶ 한 남자의 여자가 되면 더 과감해지나 봐요.

황당한 결혼·임신설 첫 유포자 범행자백

짐 덜어낸 아이유

"내달 컴백 앞두고 후련"

1년5개월 만의 컴백을 앞둔 가수 아이유(사진)가 무거운 짐을 덜어냈다. 자신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온라인상에 유포한 범인이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유의 앨범을 총괄 프로듀싱하고 있는 소속사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조영철 PD는 23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증권가 찌라시를 위장해 아이유 결혼설 등 허위 사실을 최초로 유포한 범인이 경찰에 검거돼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악플러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에게 행해지는 악플 등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캔들로 한때 곤욕을 치렀던 아이유는 5월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결혼설과 임신설이 나돌면서 또 한번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루머가 빠른 속도로 퍼지자 소속사는 "수사를 의뢰해 최초 유포자 및 적극적 유포자를 찾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유는 7월 SBS 예능 프로그램 '화신-마음을 지배하는 자'에 출연해 무성한 소문을 직접 해명하며 단단한 속내를 털어놨다. 아이유는 "루머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에 지장을 받았다. 소속사에 최초로 유포한 사람을 잡아달라고 부탁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전했다.

아이유는 다음달 7일 3집 '모던 타임즈'를 발표하고 가수 활동을 재개하면서 새 음악보다 자신을 둘러싼 루머에 관심이 집중될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범인이 검거되면서 한결 홀가분하게 대중 앞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앨범에서는 기존의 소녀 감성의 음악이 아닌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성숙한 음악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유순호기자 suns@metroseoul.co.kr

HNT 하나투어리스트
마감 임박
BIG SALE
매일매일
빅세일은 경쟁력 있는 항공 요금으로 생성된 출발일이 임박한 상품을
정상요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실속있는 상품입니다
중국/대만여행
천년의 중국, 백년의 중국!
북경 ★ 만리장성/마사지 4일 279,000부터
▶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황산 ★ 힐링여행 4일/5일 499,000부터
▶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상해/항주/주가각 4일 249,000부터
▶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장사/장가계/원가계 4일/5일/6일 549,000부터
▶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대만(야류,온천,화련) 4일 649,000부터
▶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동남아여행
놀라움과 모험이 가득한 세상!
방콕/파타야 4일/5일/6일 299,000부터
▶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보라카이 4일/5일 329,000부터
▶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푸껫 휴양지의 여왕 5일/6일 299,000부터
▶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세부 낭만의 섬 4일/5일/6일 249,000부터
▶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캄보디아(앙코르왓) 4일/5일 399,000부터
▶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일본여행
알뜰만족 실속 일본여행!
오사카 ★ 고베야경 3일/4일 449,000부터
▶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도쿄/시즈오카(하코네) 3일/4일 399,000부터
▶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규슈 온천여행 3일 429,000부터
▶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대마도 부산출발 2일/3일 149,000부터
▶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북해도 3일/4일 599,000부터
▶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예약문의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1577-1212
1600-6963
www.hanatourist

컬러 입은 주얼리 '영(young)'롱한 인기

원석의 천연석 세팅 제품들 올가을 여심 유혹

가을 타는 클라라… 시크한 변신! 평소 톡톡 튀는 패션을 선보여온 연예계 핫 아이콘 방송인 클라라가 분위기 있는 가을 감성을 풀어놓았다. 패션잡지 '인스타일' 10월호에서 공개한 프랑스 패션 브랜드 '롱샴'과의 화보 촬영에서 클라라는 바람에 흩날리는 헤어스타일과 브라운 톤의 레이크업, 시크한 옷과 가방으로 가을 패션의 정석을 선보였다. 특유의 역동적인 포즈도 인상적이다.

올가을 패션 주얼리에 '컬러 바람'이 불고 있다.

과거 유색 주얼리는 '올드'해 보이는 이미지 때문에 중장년층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나 최근 컬러 액세서리가 인기를 끌면서 젊은층 사이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스와로브스키가 지난달 출시한 '스와로브스키 바이 슈퍼' 라인은 빈티지한 디자인에 강렬한 컬러의 크리스털을 전면에 화려함을 극대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이 중에서 '핫핑크 브레이슬릿'은 스와로브스키 스톤에 핫핑크 면사를 엮어 펑키한 느낌을 제대로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니골드는 매달 색상을 선정, 그에 맞는 천연석을 활용한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첫 번째로 지난 7월에는 바다의 신비로움을 담은 블루 컬러의 천연 토파즈 목걸이를, 8월에는 밤하늘의 별에서 모티브를 딴 미라클 화이트 목걸이를 각각 내놨다. 이달엔 갈색 코냑 다이아를 세팅한 제즈 목걸이로 인기몰이 중이다.

토스는 라쉐 센스톤 원석으로 된 화려한 액세서리로, 골든듀는 핑크 사파이어, 루비, 차보라이트 등 유색 보석을 활용한 주얼리로 가을 여심을 흔들고 있다.

주얼리 업계 관계자는 "톡톡 튀는 유색 주얼리는 하나만으로도 확실한 포인트가 돼 평범한 옷차림도 금세 화려한 룩으로 만들어준다"며 "컬러 액세서리를 적용할 땐 되도록 무채색 계열의 옷을 입으라"고 조언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명품냄비 휘슬러 뚜껑 '펑'

증기배출구 없어 변형 하이스튜 팟 시정조치

고가의 주방용품 브랜드 휘슬러코리아의 냄비가 조리 중 뚜껑이 변형되는 결함이 발견돼 회사 측이 시정 조치에 나서게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휘슬러코리아의 스프링큐라 하이스튜 팟 냄비로 조리할 때 내부 압력으로 뚜껑이 변형되는 결함이 있어 최근 휘슬러 측에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뚜껑과 몸체가 완전히 밀착하도록 설계됐는데 증기 배출구가 없어 과도한 압력을 받으면 뚜껑이 '펑' 하는 소음을 내며 안으로 튀는 등 변형됐다. 시정 조치에 해당하는 제품은 2011년 1월부터 시판 때까지 판매된 2만여 개다.

휘슬러코리아는 뚜껑에 증기를 배출하는 실리콘 클립을 붙이거나 스팀 구멍을 만드는 등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호순기자

호빵, 더 빵빵하게 컴백

삼립식품 11종 판매 시작

24일 내린 가을비를 시작으로 쌀쌀한 바람이 분다는 기상청 예보에 맞춰 겨울 시즌을 알리는 호빵 판매가 본격 시작됐다.

삼립식품은 24일 총 11종의 '삼립 호빵'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스테디셀러인 단팥호빵, 야채호빵, 피자호빵과 함께 올해는 흑미검은깨호빵, 고추야채호빵, 우리밀호빵, 밤고구마호빵, 복분자호빵 등을 내놓는다. 크기를 반으로 줄인 꼬마호빵도 새로 선을 보인다.

단맛과 짠맛 등 자극적인 맛을 줄이고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해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렸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테스트에선 청양고추로 느끼함을 조절한 고기만두의 맛을 담은 '고추야채호빵'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삼립식품 관계자는 "올 겨울이 예년보다 추울 것으로 알려져 올해 호빵 시장은 지난해보다 6.7% 커진 5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호순기자

가을엔 지적으로 놀아요

책과 지식의 축제 '파주북소리' 28일 개막 … 세계 고지도 특별전시 눈길

국제적인 출판의 메카로 발전하고 있는 파주출판도시에서 국내외 출판사 및 문화 예술 단체, 아시아 출판계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축제가 열린다. 오는 28일부터 내달 6일까지 진행되는 책과 지식의 축제 '파주북소리 2013'이다. 세 번째를 맞는 올해 축제는 대중적인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고지도, 상상의 길을 걷다

축제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바로 '고지도, 상상의 길을 걷다'를 주제로 한 특별 전시다.

축제 기간 세계의 아름다운 고지도 80여 점이 전시돼 높은 가치를 지닌 지도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으며 국내외 주요 고지도 및 천문도, 지리·역사 천문 관련 고문헌과 지도첩 등 다양한 볼거리도 준비된다.

특히 2세기경 그리스 지리학자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도를 그대로 옮긴 '프톨레미의 월드 맵(Ptolemy's World Map)', 18세기 후반 제작된 '경기도 지도', 요한 가브리엘 도펠마이어의 '모투스 인 실로 스피어럼(MOTUS IN COELO SPIRALES)' 등은 세상을 한 장에 담은 지도에 숨은 비밀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준다.

◆다함께 즐기는 축제 안의 축제

대중적인 프로그램 또한 다양하게 진행된다.

관객 참여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글짓기 대축전'과 '독서모임 대축전'이 있다. 글을 쓰는 것과 책을 주제로 축제 안의 또 하나의 축제를 펼칠 예정이다. 또 1회 때부터 이어지온 지식난장에서는 파주출판도시에 위치한 각 출판사들이 저자와의 대화, 창작 워크숍, 체험 프로그램, 전시 및 공연 등을 진행한다.

전기수(직업 낭독가)가 들려주는 고담소설, 특색 있는 도서 판매 및 전시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는 '북 마켓', '토크 콘서트', 주한 브라질문화원의 '올 댓 보사노바(All that Bossa Nova)' 등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이와 함께 현재 파주출판도시에서 진행 중인 '파주 라이트 페스티벌 2013-책의 빛, 지혜의 소리'에도 참여할 수 있다. 국내의 조명 디자이너 8명이 파주출판도시 내 9개 건물에 조명을 설치, 파주출판도시가 가진 건축적 장점들을 '빛'으로 물들이는 아름다움을 생생히 지켜볼 수 있다.

◆아시아를 아우르는 문학 축제장

'아시아 작가와 도시-도시는 어떻게 문학이 되는가'에서는 아시아 지역 작가들을 국내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새롭게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코소겔디 쿨루에프(키르기스스탄), 리앙(타이완), 황석영, 이경재 등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팔레스타인 등 아시아 지역 15개국 30여 명의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문학심포지엄, '문학 콘서트', 어린이와 학부모를 위한 '스토리텔링 아시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 날짜: 9월 28일~10월 6일(토~일)
- 장소: 경기 파주시 파주출판도시 일원
- 문의: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031)955-1733

휘닉스파크 시즌권 1차 판매

마니아 전용 등 9종 손짓

보광 휘닉스파크가 2013-2014 시즌권 1차 판매를 시작했다.

1차 판매를 통해 판매될 시즌권은 'MAD(Mania Annual Discount) for 휘팍패스', '휘팍마니아', '싱글', '커플', '휘팍꿈나무' 등 총 9종이다. 싱글권은 45만원, 커플권은 82만원에 판매되며 휘팍마니아권은 41만원이다. 올해 처음 판매되는 MAD for 휘팍패스(40만원)는 지난해 시즌권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2018년까지 연속 구매자에게 매년 1만원씩 최대 5만원을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특히 올해 시즌권은 휘닉스파크가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동계올림픽 프리스타일 시합이 열려질 경기장에서 스키와 보드를 즐길 수 있다는 점과 대구, 부산 등 지방 11개 도시에서 무료 셔틀 노선을 확대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시즌권은 홈페이지(www.pp.co.kr)와 인터넷 쇼핑몰 11번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정세영기자

호텔서 먹고 자고 테라피까지

르네상스 서울호텔 출시 트루힐링 패키지 끌리네

르네상스 서울호텔은 피로한 현대인의 몸과 마음에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는 '트루 힐링 패키지'를 최근 선보였다.

이번 패키지는 편안한 숙박, 건강한 조식, 여유로운 티타임 및 객실에서의 셀프 아로마테라피 등 투숙하는 동안 지쳐있던 심신에 여유와 활력을 되찾아주는 치유 패키지다.

패키지 이용객들에게 디럭스 룸에서의 1박, 카페 엘리제 2인 조식, 트레비 라운지에서 로디켈트 티 2잔, 객실 내 레드와인 1병 셋업, 객실 내 무료 인터넷, 르네상스 레크리에이션 센터 수영장 및 사우나 무료 이용을 모두 제공한다.

또 캐나다 천연 화장품 브랜드 '후스즈앤매선'의 아로마테라피 정품 4종 세트와 힐링 도서로 구성된 14만원 상당의 특별 선물 박스도 마련됐다.

트루 힐링 패키지 가격은 28만5000원(세금·봉사료 별도)부터다.

/황재용기자

<우승 축배용 아와모리 소주>

LG 18년 숙성 술맛이 궁금해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LG 트윈스가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했다. 아직 삼성 라이온즈와 치열한 리그 우승 경쟁이 남았지만 11년 만에 가을 야구에 초대받았다. LG 야구에 실망해 떠났던 팬들도 다시 돌아와 박수를 보내고 있다. 고난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기쁨과 감격도 두 배다.

구단 사무실에는 네 개의 술항아리가 있다. 1995년 구본무 당시 구단주가 우승을 하면 축배를 들자며 선물한 오키나와산 아와모리 소주다. 공교롭게도 작년까지 항아리는 밀봉된 채 그대로 있다. 1997~1998년, 그리고 2002년 한국시리즈에 진출했지만 우승에 실패했다.

2002년 이후 10년 동안 포스트시즌에도 진출하지 못했다. 시즌 초반 반짝했지만 가을 초대권은 다른 팀의 몫이었다. 그래서 DTD(Down Team is Down)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롯데 자이언츠·KIA 타이거즈와 함께 인기팀이면서도 부진한 성적을 내는 통에 엘롯기 동맹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유난히 LG만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10년간의 굴곡의 시대를 끝낸 것은 선수들이 한마음으로 뭉쳤기 때문이다. LG가 좋은 선수들을 갖고도 성적을 내지 못한 이유로 팀워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올해는 예전의 LG가 아니었다. 젊은 선수들과 노장 선수들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서로를 독려하고 함께 가는 단단한 팀이 됐다.

2년 만에 선수단을 결집시킨 김기태 감독의 리더십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LG의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국시리즈 직행 티켓 경쟁, 그리고 가을 무대에서 진짜 승부가 기다리고 있다. 과연 김기태 감독과 LG 선수들은 18년의 한을 씻어낼까. 18년 묵은 아와모리의 술맛이 참으로 궁금해진다. /OSEN 야구전문기자

스포츠브리핑

● 벤존슨 25년만에 잠실경기장 방문

벤 존슨이 24일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의원 약물사용 금지 캠페인에서 팃프리킹을 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약물 복용으로 금메달을 박탈당한 벤 존슨(52·캐나다·사진)이 25년 만인 24일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을 찾았다.

그는 스포츠 의류 브랜드와 함께 도핑 방지 캠페인 '올바른 길을 찾도록'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달 28일 영국 런던을 출발해 캐나다 토론토, 미국 뉴욕,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 일본 도쿄를 거쳐 21일 서울에 입국했다.

● 박지성 네덜란드 매체 최고의 선수

네덜란드 축구 전문 매체 풋볼 인터내셔널이 23일(현지시간) 박지성(32·PSV 에인트호번·사진 왼쪽)을 2013~2014 에레디비지에 7라운드 최고의 선수로 선정했다.

이 매체는 전날 아약스전에서 1골 1도움으로 팀의 4-0 완승을 이끈 박지성에 대해 "언제나 그랬듯 헌신과 희생 정신으로 어린 선수들에게 모범이 됐다"며 "어지도 골 결정력에 건재하다. 동료들은 박지성을 보고 따라 하기만 하면 됐다"고 칭찬했다.

● 리디아고 세계랭킹 4위로 상승

천재 소녀 골퍼 리디아 고(16·사진)가 24일 발표된 세계여자골프 랭킹에서 7.35점을 받아 지난주보다 한 계단 올라선 4위에 자리 잡았다.

박인비(25·KB금융그룹)는 12.56점으로 6개월째 1위를 지켰고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은 10.61점으로 뒤를 이었다.

새 영웅을 맞으라 추신수(오른쪽)가 24일 뉴욕 메츠와의 경기에서 연장 10회 끝내기 안타를 친 뒤 동료 대릭 로빈슨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AP 뉴시스

추신수라 쓰고 전설이라 읽는다

내셔널리그 톱타자 최초 20-20-100-100 달성

부상에서 돌아온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의 방망이가 불을 뿜으며 팀을 구원한 것과 동시에 개인 대기록을 완성했다.

왼손 엄지손가락 부상으로 2경기를 거른 추신수는 24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뉴욕 메츠와의 경기에 1번 타자 중견수로 출전했다. 이날 6타수 3안타 2타점으로 맹타를 휘두른 것은 물론 도루 2개를 추가함으로써 미국프로야구 내셔널리그(NL) 역대 1번 타자 중 최초로 20홈런-20도루-100볼넷-100득점 기록을 달성했다.

빼어난 선구안과 타격 장타력, 빠른 발을 모두 갖춰야 가능한 기록으로 아메리칸리그 톱타자 중에서만 리키 헨더슨(1993년)과 그래디 사이즈모어(2007년) 등 2명이 이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추신수는 이날까지 21홈런-20도루-109볼넷-105득점을 기록하며 3년 만에 20홈런-20도루 클럽에도 가입했다. 메이저리그 전체 톱타자 가운데 올 시즌 20-20을 기록한 선수는 코코 크리스프(오클랜드·22홈런-20도루)에 이어 두 번째다.

추신수는 대기록 달성을 자축하듯 팀에 승리와 포스트시즌 진출권을 안기는 끝내기 안타를 터뜨렸다. 단 NL 네 팀이 겨루는 디비전 시리즈 직행을 결정지은 것은 아니며 최소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나갈 기회는 확보했다.

피츠버그와 함께 90승67패로 세인트루이스(92승65패)에 이어 NL 중부지구 공동 2위에 오른 신시내티는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3위인 동부지구 워싱턴이 이날 세인트루이스에 3-4로 지는 바람에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신시내티는 세인트루이스의 경기 결과에 따라 디비전 시리즈에 직행하거나 단판으로 치르는 중부지구 1위 결정전 또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거친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질 경우 디비전 시리즈에는 진출하지 못한다.

한편 추신수의 10회말 끝내기 안타에 힘입어 신시내티는 이날 뉴욕 메츠를 3-2로 꺾었다. /유순호기자

삼성 파죽의 7연승 "KS직행 보인다"

LG에 1게임 앞선 단독선두 롯데, KIA 꺾고 3연승

선두 삼성이 파죽의 7연승을 달리며 선두 굳히기에 들어갔다.

삼성은 24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벌어진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SK와의 방문경기에서 6-4로 승리했다.

오늘 승리로 7연승을 기록한 삼성은 이날 경기 없이 쉰 2위 LG와의 승차를 1게임으로 벌리며 3년 연속 한국시리즈 직행을 바라보게 됐다. 2회초 정형식의 2타점 중전안타와 박한이의 희생타로 3-0으로 앞선 삼성은 5회초 최형우가 우월 솔로아치를 그려 1점을 추가했다.

5회말 SK 김강민과 정상호의 1점 홈런으로 2점을 내줬지만 삼성은 이어진 6회초 김태완의 솔로 아치로 다시 3점차로 달아났다.

SK가 7회말 공격에서 김강민의 연타석 홈런과 박재상의 2루타에 이은 정상호의 희생플라이로 삼성을 4-5로 압박했지만 삼성은 8회초 1사 만루에서 정형식의 내야땅볼로 1점을 보태며 승기를 잡았다.

한편 광주구장에서는 롯데가 KIA를 8-2로 물리치고 3연승을 달렸다. 한화-넥센의 대전 경기는 비로 취소됐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전적 24일

■문학

삼성	030	011	010	6
SK	000	020	200	4

■광주

롯데	000	060	002	8
KIA	100	000	100	2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I think you're mistaken about that. 의견과 생각 묻고 답하기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그 점에 있어선 당신이 잘못 아신 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겨울 날씨를 더 좋아해요.
제 생각으로는 그건 아주 훌륭한 생각이에요.
그는 오늘 종일 열심히 일해서 피곤해요.
신입사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I think you're mistaken about that.
Personally, I prefer winter weather.
In my opinion, that's an excellent idea.
He's tired because he worked hard all day today.
What do you think of the new employee?

반복 훈련으로 자동 말하기

▶ 짧은 대화 훈련

문장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What do you think of my idea?
B 제 생각으로는 that's an excellent idea.

정답 In my opinion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 2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Personally, I [prefer / love] winter weather.
2 In my opinion, that's [an excellent / a wonderful] idea.

시간 전치사 on

▶ on은 때를 나타낼 때 '~에'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날짜	on March 25 3월 25일에
특정한 날	on my birthday 내 생일에 on Christmas Eve 크리스마스 이브에
요일	on Friday 금요일에 on Sunday morning 일요일 아침에

▶ 통문장으로 핵심문법 학습_다음 문장을 두 번 말해보세요.

1 I have a piano lesson on Monday.
저는 월요일에 피아노 수업이 있어요.
2 I'm going to have a party on my birthday.
전 제 생일에 파티를 열 거예요.
3 She's going out on Friday night.
그녀는 금요일 밤에 놀러 나갈 거예요.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In her latest article in Earthbound Science Journal, ecologist Mei Ling offers a ______ review of Paul Winthrop's research on drought resistance.
(A) critic (B) critical
(C) criticize (D) critically

02. Because she felt that the tourism video appeared to have been ______ made, Ms. Peppin recommended that it be filmed again.
(A) altogether (B) soon
(C) hastily (D) repeatedly

01 어스바운드 과학 저널에 실린 그녀의 최근 기사에서 생태학자인 메이 링은 폴 윈스럽의 내건성 연구에 대한 비판적인 논평을 하고 있다.
해설 빈칸 앞에는 부정관사 a, 뒤에는 명사 review가 있으므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B) critical을 써야 한다.
어휘 article 기사 ecologist 생태학자 critic 비평가 critical 비판적인
정답 (B) critical

02 페핀 씨는 관광 안내 비디오가 급하게 만들어졌다고 느꼈기 때문에 다시 촬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해설 '급하게'라는 의미가 적합하므로 (C) hastily를 쓴다.
어휘 recommend 추천하다 film 촬영하다
정답 (C) hastily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3. 듣고, 질문에 답하기

Where 의문문

장소를 묻는 질문입니다. 장소 관련 어휘들을 미리 알아두고 질문에 따라 응용하여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Q Where do you buy accessories? 어디서 액세서리를 사나요?
A I buy accessories at a jewelry shop. 보석 가게에서
at a department store 백화점에서
online 온라인으로

When 의문문

시간이나 상황을 묻는 질문입니다. 구체적 시간이나 특정한 상황에 관한 답변으로 말해야 합니다.

Q When do you usually listen to music? 주로 언제 음악을 듣나요?
A I usually listen to music in my free time. 여가 시간에
when I'm going to work 출근할 때
during my lunch break 점심시간에